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취업 성과

김성훈¹⁾

요약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4·9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첫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고 졸업자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데 전문고 입학 이유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전문대 진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 진학에는 본인의 고등학교 성적과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취업을 하기 위해 또는 원하는 분야를 익히기 위해 전문고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 중학교 성적 때문에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고등학교 성적이 좋고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으면 취업 대신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둘째,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에서 얻는 여러 성과를 분석하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문고 졸업자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반면에,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적합도는 전문고 졸업자의 전공 적합도보다 더 낮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기술 적합도는 전문고 졸업자의 기술 적합도보다 더 낮다.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교육 적합도는 대학 졸업자와 전문고 졸업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취업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객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은 대학 졸업자가 더 많이 받지만, 다른 주관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대학 졸업자가 전문고 졸업자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I. 서론

한국의 교육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전문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²⁾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문고 학생 수가 일반고 학생 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3년 현재 전문고 재학생의 수는 320,374명으로서, 전체 고등학생 수의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2)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로 불리던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고는 2010년 6월 29일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특성화고’로 바뀌어,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와 함께 네 가지 고교 유형의 하나가 되었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3). 이 연구에서는 전문고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많은 연구에서 전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연구가 분석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가 전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일반고 재학생 수의 비율인 71.1%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하지만, 전문고 학생 수의 비율이 낮다는 점만으로 전문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설명할 수는 없다. 특수목적고 학생 수의 비율은 3.5%, 자율고 학생 수의 비율은 7.9%로서, 전문고 학생 수의 비율보다도 낮지만, 특수목적고와 자율고와 관련된 문제들은 교육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전문고와 관련된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고에 관한 연구가 적은 두 번째 이유로서 한국 교육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대학 서열에서 상위에 속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가운데 특수목적고나 자율고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전문고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학 입시 경쟁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더라도 전문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애초에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전문고의 실제 성격은 최근 들어 많이 변화하였다. 이 점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지표는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다. 2013년에 대학에 진학한 전문고 졸업생의 비율은 48.0%이고, 이 비율은 2009년에 73.5%를 나타내기도 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전문고의 설립 목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대학 진학률이 갖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문고 졸업자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청년 실업 문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변수용·김경근, 2012).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흔히 거론되는 청년 실업률은 최근 십여 년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5-29세의 청년층이 보여 주는 실업률은 2000년 이후 7% 대와 8% 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9.0%에 이르렀다(한겨레, 2015년 1월 15일). 대학에 진학하는 전문고 졸업자는 주로 전문대나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변수용·김경근, 2012), 이른바 일류대 졸업자들이 겪는 취업난과 실업의 문제와 크게 관련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대졸 실업 문제 가운데서도 지방대 졸업자가 겪는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고 졸업자가 전문대나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이 갖는 의미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고 졸업자의 다수가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전문고의 존립 근거를 적지 않게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전문고 졸업자가 고등학교에서 쌓은 인적 자본의 상당 부분은 사장되어 버리며,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것이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결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은 크게 보아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정상적인 전문고 교육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대학 진학 문제를 넘어서 노동시장의 문제까지 분석해야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전문고 졸업자의 진

로 선택과 더불어 취업 성과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학력주의가 전문고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와 이론

전문고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문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연구인데, 이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전문고의 진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은 전문고의 진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강순희, 2013; 김영희·김성봉, 2011; 임기홍, 2011).

전문고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영역은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것인데, 이 영역의 연구는 주로 전문고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제시되는 것은 부모의 교육수준, 사교육비 지출, 학업 성취도, 학생의 희망 교육 수준, 징계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전문고 선택 동기(변수용·김경근, 2012), 전문고 계열, 성, 가정 경제 수준, 졸업 후 진로 계획(임효신·정철영, 2010), 학교 성적, 근로 경험, 가구 소득, 부모 생존 여부, 보호자 학력(채창균, 2009) 등이다.

전문고 졸업자의 취업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문고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는데, 박동열 외(2010)는 2008년 현재 전문고 졸업자가 일반고 졸업자보다 월 평균 4만 5천 원을 더 받으며, 노동 경력이 길어질수록 전문고 졸업자는 일반고 졸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고 졸업자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본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전문고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전문고 졸업 후 대학까지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한다. 이는 두 종류의 노동자 범주의 첫 일자리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인데, 전문고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보다 전문고 졸업 후 대학까지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가 더 큰 노동시장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전문고 졸업자들의 취업 성과에 대학 졸업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때는 취업 성과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개인적 취업 성과는 다시 임금으로 대표되는 객관적 성과와 전반적으로 직장에 만족하는 정도와 직장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 사회적인 취업 성과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업자와 일자리가 일치하는 정도를 통해 파악한다. 이렇게 취업 성과를 분석할 때는 대학 교육 외에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난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가 전문고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고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한 사람들은 전문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사람들보다 더 큰 노동시장 성과를 거둘 것이고, 노동시장 경력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러한 격차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전문고 졸업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이 연구의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4-9차 연도 자료에 포함된 전문고 졸업자 자료이다. 4차 연도인 2007년에 조사 대상이 된 전문고 3학년 학생 1,393인은 두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패널은 1차 연도부터 조사 대상이 된 중학교 3학년 2,000인 가운데 전문고에 진학한 442인이고, 두 번째 패널은 4차 연도에 신규 패널로 조사 대상이 된 전문고 3학년생 951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1,393인 가운데 5차 연도에도 조사 대상이 된 1,076인을 선택한 다음에, 고교 중퇴자 7인과 진학한 대학의 유형이 분명하지 않은 4인을 제외하고 1,065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각 분석의 대상은 서로 다르다. 먼저,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을 분석할 때는 1,065인 모두가 분석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분석은 취업 성과의 분석인데, 그 대상은 전문고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와 전문고 졸업 후 전문대나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 594인이다. 전문고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는 전문고 졸업 직후인 5차 연도에 취업을 한 집단과, 5차 연도에 미취업 상태에 있다가 6차 연도 이후에 취업을 한 집단으로 구성된다.

2. 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정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 정의

변수	정의
진로	전문고 졸업 후 선택한 진로: (1) 임금 노동자로 취업, (2) 미취업, (3) 전문대 진학, (4) 4년제 대학 진학, (5) 대학 진학 준비 또는 해외 유학 준비.

<표 계속>

변수	정의
임금	시간당 자연대수 임금: (1) 월 평균 임금을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함, (2) 주당 평균 노동시간에 4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3) 음수를 피하기 위하여 1을 더한 다음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얻은 값.
직장 만족도	직장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만족하지 않음, (3) 보통임, (4) 만족함, (5) 매우 만족함.
발전 가능성	직장에서 개인이 발전할 가능성에 만족하는 정도: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만족하지 않음, (3) 보통임, (4) 만족함, (5) 매우 만족함.
전공 적합도	업무가 전공과 맞는 정도: (1) 전혀 맞지 않음, (2) 맞지 않음, (3) 보통임, (4) 맞음, (5) 매우 맞음.
요구되는 기술 수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자신의 수준에 비해 (1) 아주 높거나 높음, (2) 비슷함, (3) 아주 낮거나 낮음.
요구되는 교육 수준	직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수준이 자신의 수준에 비해 (1) 아주 높거나 높음, (2) 비슷함, (3) 아주 낮거나 낮음.
전문고 소재 지역	(1) 수도권, (2) 비수도권 광역시, (3) 기타 지역: 비수도권 비광역시.
전문고 계열	(1) 공업고, (2) 상업고, (3) 기타.
전문고 진로 지도	전문고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진로 지도 종류의 수. 진로 지도 종류는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 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 검사), 직업 체험, 진로 상담.
전문고 입학 이유	전문고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1)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하거나 자신이 원하던 분야이므로, (2) 성적 때문에, (3)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4) 기타: 가정 형편, 부모 권유, 교사 권유, 이유 없음.
전문고 학업 성적	2006년 2학기의 전문고 학업 성적: 표준 9단계 점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	(1) 여성, (2) 남성.
가구 소득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월 평균 가구 소득에 1을 더하여 자연대수를 취하여 얻은 값.
부모 학력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가운데 높은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이상.
직업	(1) 전문직: 관리직, 경영, 회계, 금융, 보험, 교육, 연구,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건축, 의료 관련 전문직, 기계, 금속, 재료, 화학, 섬유, 전자, 전기, 컴퓨터, 통신, 식품, 환경 공학 기술자, 농업, 원예, 축산 기술자, (2) 단순직: 운송, 판매, 건설, 광업, 생산,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3) 기타.
부모 직업	(1) 부모 전문직: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전문직을 가짐, (2) 부모 단순직: 부모 모두 단순직을 갖거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단순직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은 비전문직을 가짐, (3) 기타.
최종 학교	취업 전 최종 학교: (1) 전문고, (2) 전문대, (3) 4년제 대학.
근무 형태	(1) 비정규직, (2) 정규직.
기업 규모	직장의 피고용자 수: (1) 중소기업: 0-299인, (2) 대기업: 300인 이상.
산업	(1) 제조업, (2)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 (3) 기타 서비스업.

<표 1>에서 종속변수는 진로 선택, 임금,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도, 요구되는 기술 수준, 요구되는 교육 수준인데, 진로 선택 외의 변수는 취업 성과를 나타낸다. 취업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 임금,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은 취업자 개인의 성과를 나타내고, 전공 적합도, 요구되는 기술 수준,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사회적 수준의 성과, 곧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개인의 취업 성과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금 외의 다양한 노동 조건에 취업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도 취업 성과의 주관적 측면으로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은 임금과 직장 만족도가 첫 취업 시점에 한정된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즉, 발전 가능성은 어떤 일자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을 좀 더 긴 직업 경력을 고려하여 파악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이다.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각각 기술 적합도와 교육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요구되는 기술 또는 교육의 수준이 개인의 기술 또는 교육 수준과 비슷할 경우에 적합도가 높고, 그 외에는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의 변수 정의를 바탕으로 파악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두 표본의 특성으로 나누어 <표 2>와 <표 3>에 제시한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1

변수	범주	빈도	%	변수	범주	빈도	%
진로 선택 분석 표본							
진로	취업	151	14.19	전문고 입학 이유	취업 선호, 희망 분야	250	24.06
	미취업	72	6.77		성적	401	38.59
	전문대 진학	541	50.85	대학 진학	228	21.94	
	4년제 대학 진학	231	21.71	기타	160	15.40	
	진학 준비	69	6.48	성	여성	493	46.29
전문고 소재 지역	수도권	390	36.65		남성	572	53.71
	비수도권 광역시	271	25.47	부모 학력	중졸 이하	281	30.12
	비수도권 비광역시	403	37.88		고졸	557	59.70
전문고 계열	공업고	411	39.07		대졸 이상	95	10.18
	상업고	410	38.97	부모 직업	전문직	146	17.83
	기타	231	21.96		단순직	64	7.81
					기타	609	74.36
취업 성과 분석 표본							
요구되는 기술 수준	아주 높거나 높음	108	18.37	근무 형태	비정규직	184	33.39
	적절함	363	61.73		정규직	367	66.61
	아주 낮거나 낮음	117	19.9	기업 규모	중소기업	415	72.55

<표 계속>

변수	범주	빈도	%	변수	범주	빈도	%
요구되는 교육 수준	아주 높거나 높음	66	14.57	산업	대기업	157	27.45
	적절함	295	65.12		제조업	156	26.26
	아주 낮거나 낮음	92	20.31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	167	28.11
최종 학교	전문고	195	32.83	성	기타 서비스업	271	45.62
	전문대	325	54.71		여성	345	58.08
	4년제 대학	74	12.46		남성	249	41.92
직업	전문직	54	9.39				
	단순직	50	8.7				
	기타	471	81.91				

〈표 3〉 연구대상의 특성 2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진로 선택 분석 표본					
전문고 진로 지도	1065	3.243	1.688	0	6
전문고 학업 성적	1062	4.376	1.790	1	9
가구 소득	879	5.338	0.787	0	8.007
취업 성과 분석 표본					
임금	436	0.519	0.205	0.114	2.453
직장 만족도	593	3.349	0.815	1	5
발전 가능성	589	3.107	1.010	1	5
전공 적합도	593	3.032	1.163	1	5
전문고 학업 성적	592	4.414	1.789	1	9

이 연구의 대상이 보여 주는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점을 몇 가지 살펴 보면, 우선 전문고 졸업자의 대다수가 2008년에 대학에 진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전문고 졸업자의 비율이 72.56%에 이른 것이다. 전문대 진학자의 비율이 50.85%라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는 전문고 졸업자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에 훨씬 더 많이 진학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 취업자 비율은 14.19%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고 졸업자의 이러한 진로 분포는 전문고의 존립 근거가 현실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고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는 점은 전문고 입학 이유의 분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전문고의 목적에 맞는 입학 이유는 24.06%에 지나지 않고, 성적이나 대학 진학이 입학 이유인 학생의 비율이 60.53%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사회에서 전문고 학생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임동현, 2009). 전문고가 자신의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 지도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이 전문고에 다니면서 받은 진로 지도의 종류가 평균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점은 전문고가 대체로 진로 지도를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전문고 졸업자가 첫 일자리를 얻는 기업의 산업 분포를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26.26%인 점을 공업고의 비중이 39.07%인 점과 비교하면, 공업고 졸업자의 상당수가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상업고와 더불어 전문고 계열의 중요한 양대 축인 공업고가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의 분포가 진로 선택 분석 표본에서와 취업 성과 분석 표본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데, 후자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한국의 남성 청년 가운데 상당수가 첫 취업을 하기 전에, 특히 대학 재학 중에 병역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의 마지막 연도는 9차 연도인 2012년인데, 이때는 대학 재학 중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이행 중인 남성 청년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연속변수인 임금,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도가 종속변수일 때는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범주변수인 진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종속변수일 때는 다항로지분석을 사용한다.

IV. 분석 결과

1.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

<표 4>는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다항로지분석의 결과를 보여 준다.

<표 4>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

	종속변수							
	미취업 (기준: 취업)		전문대 진학 (기준: 취업)		4년제 대학 진학 (기준: 취업)		진학 준비 (기준: 취업)	
독립변수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수도권 고교(기준: 기타 지역 고교)	0.650	0.465	0.501 [†]	0.303	0.248	0.367	1.340**	0.462

<표 계속>

독립변수	종속변수							
	미취업 (기준: 취업)		전문대 진학 (기준: 취업)		4년제 대학 진학 (기준: 취업)		진학 준비 (기준: 취업)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비수도권 광역시 고교(기준: 기타 지역 고교)	0.254	0.474	0.201	0.291	0.905**	0.342	0.384	0.512
공업고 (기준: 기타 고교)	-0.505	0.560	-0.337	0.362	-1.012*	0.423	0.883	0.747
상업고 (기준: 기타 고교)	-0.395	0.500	-0.805**	0.304	-0.942**	0.361	0.896	0.683
전문고 진로 지도	0.024	0.106	0.042	0.070	0.062	0.085	-0.061	0.113
성적 때문에 전문고 입학(기준: 취업이나 희망 때문에 전문고 입학)	0.824 [†]	0.450	1.238***	0.274	1.334***	0.345	0.477	0.440
대학 진학을 위해 전문고 입학 (기준: 취업이나 희망 때문에 전문고 입학)	1.385*	0.650	2.027***	0.423	2.641***	0.470	0.944	0.603
기타 이유로 전문고 입학(기준: 취업이나 희망 때문에 전문고 입학)	0.538	0.535	0.554 [†]	0.329	0.627	0.428	-0.226	0.581
전문고 학업 성적	0.247*	0.104	-0.047	0.066	-0.466***	0.084	-0.125	0.109
남성(기준: 여성)	1.343**	0.447	1.191***	0.294	1.604***	0.345	0.890 [†]	0.471
가구 소득	-0.094	0.334	0.348	0.216	0.875**	0.270	-0.341	0.338
고졸 부모(기준: 중졸 이하 부모)	0.285	0.398	0.367	0.248	0.436	0.311	0.296	0.413
대졸 이상 부모 (기준: 중졸 이하 부모)	-0.097	0.909	0.377	0.528	1.149*	0.568	0.888	0.708
전문직 부모(기준: 기타 직업 부모)	-0.394	0.699	0.328	0.354	0.109	0.405	0.942 [†]	0.501
단순직 부모(기준: 기타 직업 부모)	0.766	0.509	-0.531	0.394	-0.752	0.546	-1.730	1.074
상수	-3.037	1.907	-1.846	1.201	-4.427**	1.508	-0.606	1.906
로그 가능도	781							
자유도	60							
사례 수	-861.927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4>의 결과를 통해, 전문고 졸업 후에 취업 상태 대신 미취업 상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살펴 보면, 전문고 진학 이유와 전문고 학업 성적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을 하려고 또는 희망 분야가 있어서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에 비해, 성적 때문에 또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은 미취업 상태에 놓이게 되기가 더 쉽고, 전문고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미취업 상태에 놓이게 되기가 더 쉽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이유로 전문고를 선택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문고 졸업 후 취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따라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낮은 학업 성적으로 표현되는 낮은 인적 자본은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문대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4년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 보면, 취업하는 대신 전문대에 진학할 가능성과 취업하는 대신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에 전문고 입학 동기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선 알 수 있다. 취업을 하려고 또는 희망 분야가 있어서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에 비해, 성적 때문에 또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이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따라서 대학 진학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학업 성적, 가구 소득, 부모 학력이 전문대 진학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차이도 보인다. 여기서 가구 소득은 경제적 자본을, 그리고 학업 성적과 부모 학력은 문화적 자본을 나타낸다고 보고,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을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에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전문대 진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 진학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많은 학비가 필요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성적과 부모의 학력이라는 문화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밝혀 왔으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문고 졸업자들만을 분석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와 입시 경쟁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고의 진로 지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기존 연구가 밝히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같은 점이 밝혀지고 있다. <표 4>에서 전문고 진로 지도의 계수가 네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문고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전문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지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문고 졸업자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기존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표 4>에서 대학 진학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에서 비수도권 광역시 변수의 계수가 의미 있는 양수로 나타나는 점이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전문고를 졸업한 학생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 비수도권 대학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비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전문고를 졸업한 학생은 거주 지역도 비수도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가까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전문고 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입학에 장벽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대학이 다양한 유형의 수시 입학 전형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러한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는 성적 때문에 전문고 입학한 학생이 취업이나 희망 때문에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보다 취업 대신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 점 또한 전문고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2>는 성적 때문에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38.59%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낮은 중학교 성적 때문에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 진학 때도 학력이 낮아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이 연구의 대상의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난 231인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전문고 졸업자의 비율이 8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전문고 졸업자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는 주로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2. 전문고 졸업자의 취업 성과

<표 5>는 전문고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와 전문고 졸업 후 전문대나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과 가운데 연속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임금 수준,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5> 취업 성과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임금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도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전문대 최종 졸업 (기준: 전문고 최종 졸업)	0.069**	0.024	-0.141	0.089	0.023	0.109	-0.228 [†]	0.124
4년제 대학 최종 졸업(기준: 전문고 최종 졸업)	0.172***	0.034	-0.129	0.126	-0.081	0.153	-0.334 [†]	0.175
전문직 (기준: 기타 직업)	0.093**	0.034	0.331**	0.124	0.441**	0.151	0.297 [†]	0.172

<표 계속>

독립변수	종속변수							
	임금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도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단순직 (기준: 기타 직업)	-0.056	0.039	-0.114	0.145	-0.295 [†]	0.177	-0.635**	0.202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053*	0.022	0.206**	0.080	0.438***	0.097	0.554***	0.111
대기업 (기준: 중소기업)	0.071**	0.024	0.161 [†]	0.085	0.100	0.104	-0.088	0.119
제조업(기준: 기타 서비스업)	0.040	0.027	-0.146	0.096	-0.233*	0.118	-0.266*	0.134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기준: 기타 서비스업)	-0.031	0.024	-0.170 [†]	0.089	-0.242*	0.108	-0.335**	0.124
남성(기준: 여성)	0.065**	0.021	0.176*	0.075	0.153 [†]	0.092	-0.231*	0.105
전문고 학업 성적	0.002	0.006	-0.022	0.021	-0.038	0.025	-0.037	0.029
상수	0.368***	0.043	3.374***	0.156	3.010***	0.189	3.341***	0.216
결정계수	0.167		0.065		0.105		0.153	
사례 수	388		512		511		513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표 5>는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최종 학교가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인 노동자는 최종 학교가 전문고인 노동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전문고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학력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이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력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성의 차이, 곧 인적 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는 해석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취업자의 생산성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전문고 학업 성적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표 5>의 분석결과는 전문고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학력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³⁾ 이 점으로부터 학력주의의 영향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전문고 졸업자의 상당수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러한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력주의의 영향은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 수준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 사이에 준

3) 개인의 생산성을 전문고 학업 성적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쌓는 인적 자본은 전문고만을 졸업한 취업자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성적 또는 수능 점수가 취업자의 생산성의 차이를 의미 있게 설명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전문고만을 졸업한 취업자도 전문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대학에서 인적 자본을 쌓는 동안 직업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인적 자본을 쌓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고 학업 성적으로 개인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재하는 격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 최종 졸업의 계수와 4년제 대학 최종 졸업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보면, 유의수준 0.001에서 두 계수의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1, 377) = 12.22$). 다시 말해서, 전문대를 졸업한 취업자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가 임금을 의미 있게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 2>에서 보았듯이, 실제로는 전문고 졸업자들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비율보다 전문대 진학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표 4>의 분석결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고 졸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임금 격차는 첫 일자리의 첫 해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이다. 여러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초기의 임금 격차는 취업자들의 경력이 쌓여도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고 졸업자에게 작동하는 학력주의의 양상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 노동의 초기와 그 후에 계속 나타나는 학력별 임금 격차는 전문고 졸업자의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임금 외에 개인적 차원의 또 다른 취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장 만족도와 발전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의 결과는 지금까지 제시된 해석과는 다른 방향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표 5>의 분석결과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이 취업자의 직장 만족도와 발전 가능성을 의미 있게 더 높이지는 못함을 보여 준다. 임금 외의 다양한 노동 조건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첫 번째로 취업한 직장에서 취업자 개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학 졸업은 취업자에게 의미 있는 이점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문고 졸업자들이 충분히 파악한다고 해서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은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인의 생산성 외에 대졸 학력 자체가 더 많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임금 외의 다른 직업적 보상이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의미 있게 높이지는 않는다는 점에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6>은 <표 5>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범주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두 종속변수, 즉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요구되는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6〉 취업 성과에 대한 다항로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아주 높거나 높음(기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적절함)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아주 낮거나 낮음(기준: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적절함)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아주 높거나 높음(기준: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적절함)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아주 낮거나 낮음(기준: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적절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전문대 최종 졸업(기준: 전문고 최종 졸업)	-0.096	0.303	0.461	0.334	-0.125	0.385	0.417	0.383
4년제 대학 최종 졸업(기준: 전문고 최종 졸업)	-0.179	0.446	0.821 [†]	0.444	-0.584	0.544	0.731	0.461
전문직(기준: 기타 직업)	0.018	0.373	-1.618*	0.762	-0.494	0.545	-2.081*	1.054
단순직(기준: 기타 직업)	-0.728	0.770	0.526	0.419	-0.371	0.794	0.772 [†]	0.453
정규직(기준: 비정규직)	0.269	0.312	-1.477***	0.263	0.468	0.402	-1.212***	0.305
대기업(기준: 중소기업)	-0.630*	0.314	-0.960**	0.320	-0.225	0.368	-0.963*	0.384
제조업(기준: 기타 서비스업)	-0.121	0.331	0.497	0.347	-0.488	0.390	0.112	0.402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기준: 기타 서비스업)	-0.575 [†]	0.342	0.473	0.293	-0.382	0.419	0.739*	0.344
남성(기준: 여성)	-0.048	0.264	-0.168	0.267	0.917**	0.343	-0.050	0.318
전문고 학업 성적	-0.008	0.072	-0.072	0.074	-0.025	0.090	-0.073	0.087
상수	-1.018 [†]	0.550	-0.348	0.556	-1.773*	0.692	-0.543	0.645
로그 가능도	-421.930				-290.489			
자유도	20				20			
사례 수	512				383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전공 적합도를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표 6>에 제시된 분석결과와 종합하면, 대학 졸업은 사회적 차원의 취업 성과, 곧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대학 졸업이 취업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표 5>가 보여 주듯이 전문대 졸업이나 4년제 대학 졸업이 첫 직장의 전공 적합도를 의미 있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학보다 직업 교육을 더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전문대도 전문고에 비해 전공 적합도를 낮춘다는 점에서는 4년제 대학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⁴⁾ 둘째, <표 6>이 보여 주듯이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개인의 기술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전문고 졸업자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전문고 졸업자의 다수가 전문대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전문대가 전문고에 비해 취업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전문대의 직업 교육 내용이 전문고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직업 교육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 4년제 대학이 전문고에 비해 전공 적합도를 낮춘다는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개인의 기술 수준보다 더 낮을 가능성을 4년제 대학이 더 높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직업에 필요한 인적 자본이 아니라 여러 직업에 두루 필요한 사고력, 창의력 등의 일반적인 인적 자본을 4년제 대학이 뚜렷하게 더 증대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6>에서 교육 적합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최종 졸업 변수의 두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4년제 대학이 전문고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일반적 인적 자본을 의미 있게 높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들은 전문고가 취업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함축한다. 전문고가 비록 취업자 개인에게는 임금 수준의 측면에서 불리함을 안겨 주지만, 사회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보다 더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에 관한 분석의 결과와 전문고 졸업자의 첫 취업 성과에 관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러 논의가 가능한데,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전문고 졸업자가 첫 일자리에서 얻는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이 4년제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고 졸업자는 전문고만을 졸업한 취업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로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보다 성적이나 대학 진학 때문에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이 결국 첫 일자리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취업을 위해서 또는 희망 분야를 익히기 위해서 전문고에 입학한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면, 전문고의 존립 이유가 상당히 흔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아주 낮거나 낮음'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의 분석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전문대 최종 졸업의 계수와 4년제 대학 최종 졸업의 계수를 비교해 보면, 두 계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F(1, 502) = 0.49$, 유의확률 0.482).

V. 결 론

‘한국교육고용패널’의 4-9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첫 취업 성과를 분석한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고 졸업자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데 전문고 입학 이유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전문대 진학과는 달리 4년제 대학 진학에는 본인의 고등학교 성적과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취업을 하기 위해 또는 원하는 분야를 익히기 위해 전문고를 선택을 한 학생에 비해 중학교 성적 때문에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문고에 진학한 학생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고등학교 성적이 좋고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으면 취업 대신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둘째,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에서 얻는 여러 성과를 분석하면,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전문고 졸업자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반면에,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적합도는 전문고 졸업자의 전공 적합도보다 더 낮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기술 적합도는 전문고 졸업자의 기술 적합도보다 더 낮다. 직장 만족도, 발전 가능성, 교육 적합도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취업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객관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을 대학 졸업자가 더 많이 받지만, 다른 주관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대학 졸업자가 전문고 졸업자보다 더 많이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취업 성과인 임금을 전문고 졸업자보다 대학 졸업자가 더 많이 받는 현실은 전문고 졸업자의 다수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고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취업자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배경에는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고 졸업자보다 대학 졸업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학력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학 진학은 또한 취업자와 일자리의 일치 정도, 곧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이 전공, 기술, 교육의 적합도를 높이지 못하거나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고 졸업자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 전문고 졸업자의 다수가 전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문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다면, 노동자 계급 가운데 안정된 경제적 상태에 놓이는 계층이 강화되거나 중간 계급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고 졸업자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가 전문고 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첫 취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학력주의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과 관련지어 논의한 의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먼저, 전문고 졸업자의 다수가 취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데는 이 연구에서 다룬 다양한 취업 성과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관계에서 작동하는 학력 차별과 학벌주의는 전문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을 부추기는 큰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학력 차별과 학벌주의의 다양한 양상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첫 취업 성과를 다루고 있어,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장점을 갖지만, 대학 졸업자의 첫 취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대졸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많은 대학생이 졸업을 미루고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대졸자의 첫 취업이 과소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 청년이 병역 의무를 대학 재학 중에 또는 대학 졸업 직후에 이행할 때는 역시 첫 취업이 일어나지 않아 이 연구의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가 진행되면서 축적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순희(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희·김성봉(2011).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특성화고·종합고·마이스터고 편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백성준·최동선·장명희·김미란(2010). 전문계 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수용·김경근(201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한국교육, 제39권 제2호, 한국교육개발원.
- 임기홍(2011). 국내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개선방안 및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9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임동현(2009). 전문계고 아이들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편견. 중등우리교육, 제238호, 중등우리교육.
- 임효신·정철영(2010).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성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2권 제4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 채창균(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The HRD Review, 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bstract ❖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career choices and job achievements

Kim Sunghoon(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career choices and job achievements using the 4th-9th waves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asons for entering vocational high school affect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going to college instead of getting a job, and high school achievements, household income, and parents' education levels affect high school graduates' going to senior college instead of getting a job. Compared to those who enter vocational high school because they want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or they like vocational high school, those who enter vocational high school because of their low grades in the middle school or because of their plans to go to college are more likely to go to college than they are likely to get a job. The higher high school grades, household income, and parents' education level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going to senior college instead of getting a job. Second, the achievements at the first job after the highest level of schooling are diversified. On the one hand, wage levels of college graduates are higher than thos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but on the other hand, major suitability of college graduates is lower than tha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nd skill suitability of senior college graduates is lower than tha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workplace satisfaction, probability of self-improvement, and education suitability of college graduates and thos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se results imply that on the one hand, college graduates earn more wages,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job achievement for individual employees, but on the other hand, they show neither higher subjective job achievements nor higher job achievements at the social dimension tha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do.

Key words: vocational high school, junior college, senior college, job achievements